

임진왜란 순국 800의승 위령대제 치사

오늘 임진왜란으로 순국(殉國) 산화하신 800여 스님들의 호국영령(英靈)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위령대제 봉행에 추모의 마음을 올립니다.

‘불교’하면 ‘호국’이라는 의식은 이미 국민들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가 나라가 외침에 의해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난국 타개를 위한 정신적 지도 원리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선시대는 억불숭유 정책으로 사찰에 가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스님들의 신분을 천민으로 전락시켰으며, 입산출가 금지령을 내리는 등 불교에 대한 탄압은 이로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군의 침입으로 국토가 짓밟히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이자 자발적으로 봉기하여 승병(僧兵)을 결성해 왜군과 맞서 싸우고 의롭게 순국하는 비운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출가수행자의 본분은 끊임없이 수행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는 동시에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와 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바친 스님들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은 출·제가를 떠나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진왜란에 참여했던 유생들의 시신을 거두어 700의총을 세우고 추모하고 있지만, 순국하신 800여 스님들 표지석도, 추모시설도, 추모제도 없이 400여년의 세월이 흘러 이에 대한 예우를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더하기만 합니다.

다행히 임진왜란 순국 800의승 위령대제 봉행위원회에서 추모재를 봉행하고 스님들의 명예회복과 800의승 추모관을 세워 스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겠다고 하니 실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임진왜란 순국 800의승 위령대제’ 봉행(奉行)을 시작으로 순국(殉國) 스님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국가나 종단차원의 정기적인 위령재 봉행, 넋을 위로할 수 있는 추모관 건립, 의승(義僧)위패 봉안, 관련 세미나 개최 등으로 전개되어 불교와 스님들의 지위 개선의 발화점(發火點)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국역사 이래 수많은 병란(兵亂)으로 산화한 호국영령 및 유주무주 고혼(孤魂) 영가들은 극락왕생하고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여国泰民安(國泰民安)과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위령대제를 준비하여 임진왜란으로 순국하신 스님들의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역사를 바로 잡는데 진력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불기2557년 9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